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 367-9000

제1782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8월 9일 (음력 6월 27일) 목요일

남북정상회담 28~30일 평양서

6·15 이후 7년만에…서울·평양 동시 발표

北核 해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기 마련

노대통령 "정례화 기틀 마련"…추진위원장에 문재인 비서실장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남북 정부가 8일 공식발표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가졌던 정상회담 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북핵폐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백종천 실장은 회견에서 지난 5일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사이에 이뤄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발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최대현안인 북핵문제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미국이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패키지 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변 상황을 설명하며 핵폐기 결단을 내릴 것을 설득할 것으로 보여 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남북정상회담을 토대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열어 정전상태인 한반도의 질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 국내 정치적으로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17대 대선을 불과 넉달여 남겨놓고 열린다는 점에서 대선판도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정부가 지난달초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간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데 대해 북한이 지난달 29일 김 원장의 비공개 방북을 공식 초청, 김 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8월2~3일, 4~5일 두차례 방북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북한도 이날 오전 9시57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를 발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일회성 성과보다는 다음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남북정상회담의 제도화,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의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비서실장)와 '준비기획단'을 발족, 운영키로 했다. 또한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연합뉴스

정상회담 지면 안내

의제와 전망	3면
정치권 반응	4면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	5면
범여권 인사 역할론	6면
광주·전남지역민 반응	8면
경제적 효과	10면
올림픽 단일팀 급물살	19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왼쪽)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급 7명 교체

법무 정성진 농림 임상규

정통 유영환 국조 윤대희

정성진 법무

임상규 농림

유영환 정통

윤대희 국조

청렴위장 이종백 노동위장 이원보

통상본부장 김종훈 유엔대사 김현종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새 법무장관에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농림장관에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정보통신부장관에 유영환 정통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정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프로필 6면〉

국무조정실장에는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통상교섭본부장에 김종훈 한미 FTA협상단 수석대표, 주유엔대표부 대사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탁됐다. 또 국가청렴위원장에는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이, 중앙노동위원장에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내정됐다.

통일부 차관에 이관세 남북회담본부장, 여성부 차관에 박승주 소청심사위 상임위원, 청와대 경제수석에 김대유 통계청장, 통계청장에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이 발탁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람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로 향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onnam-tsc.kr

광주 4가구중 1곳 최저생계비 밑돌아

계층간 소득격차 심화

광주시내 4가구 중 1가구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돌고 있는 반면,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구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어서는 등 계층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에서 월평균 소득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117만422원)를 밑도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12만1천437가구에 달했다. 또 평균 소득이 80만원을 밑도는 가구도 19%(8만9천734가구)나 됐다.

반면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구는 10.6%(4만8천553가구)를 차지했으며, 300만원 이상도 18.5%(8만4천784가구)에 달하는 등 계층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는 또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이 219만4천원으로, 전국 평균(219만9천원)보다 5천원 낮게 나타났다.

전남은 전반적인 소득은 낮은 반면 계층간 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51만9천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남은 월평균 8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의 비중이 전체의 42%에 달했지만 400만원 이상은 1.9%에 그쳐 계층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경우 80만원 이하의 가구가 19.6%에 달한 반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